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될까?

국토부, 개선방안 발표

도입체, 지속관리 요구

속보=정부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본지 9월14일자 6면)을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부당 삭감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최근 내놓았다.

개선방안에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 정상금액보다 약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부규정도 삭제토록 했다. 발주기관이 그동안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들

도 시기에 맞게 지급하도록 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도 건설협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명문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은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내부 규정이 삭제되면 불공정 관행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 “평창올림픽 6개 신설경기장 건설 속도”

지원추 “공정률 현재 30%... 연말까지 50%로”

정부가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 경기장의 공정률을 연말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 경기장은 △정선 알파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 하키센터 △관동 하키센터 등 6개이며,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내에 있는 봅슬레이, 스킨레이튼, 루지 등 썰매종목 경기장의 트랙 부분 등을 연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완공 이후에는 훈련장으로 활용된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용평 알파인 경

기장과 알펜시아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 4개 시설은 내년부터 국제 대회 규격에 맞춰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시설 교체와 위험구간 코스 등을 개선해 2016년 말에는 국제경기연맹에 국제인증받을 계획이다.

지원위원회는 이 밖에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국내의 관광객이 숙박과 휴양, 한국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전통한옥촌, 전통역사문화지구, 정동진관광휴양지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특구종합 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애초 조성키로 한 ‘5개 특구, 11개 지구’를 ‘5개 특구, 13개 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 건단련,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4명 발표

## 강병구·이기영·박정미씨 등 14명 국토부장관상

〈전기용접〉

〈타일〉

〈실내건축제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6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26명의 기능공이 맞붙어 가장 경합이 치열했던 전기용접 분야 최고수는 강병구(두산건설)씨가

차지했다. 24명이 출전한 타일 종목에서는 이기영(성남건설기능학교)씨가 최고 기능공 자리에 올랐다.

4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정미씨는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실내건축제도 분야 1위에 올랐다. 전산응용 토목제도 분야 최희영(미래기술단)씨, 조경 분야

정근정(산천랜드)씨, 도장 분야 박수진씨도 각각 1위로 선정돼 총 4명의 여성 1위 입상자를 배출했다.

방수 분야 1위 이승진(예창건설)씨와 철근 분야 1위 이영재(신화)씨는 다른 직종 2관왕 수상 경력자가 돼 시선을 끌었다.

14개 종목별 1위 수상자에게

는 상금 2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2위 18명과 3위 32명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과 70만원이 수여된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와 2박3일 일본 규슈 산업연수 혜택도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열린다. 김정석기자 jskim@

#### 입상자 명단

〈거푸집〉 1위 정규식(다후)·2위 김훈(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3위 김형래(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건축목공〉 1위 이상철(수은공예)·2위 강태호(건설기술교육원)·3위 김광남, 장재우(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미장〉 1위 송치현(라운건설)·2위 최상해(예일건설)·3위 김종윤(흥성정의상), 김진국(거정건설), 김흥남(상연토건) 〈조적〉 1위 박정복(거정건설)·2위 한영두·3위 남근모(성일

개발), 한영화 〈철근〉 1위 이영재(신화)·2위 이강산(장인건설)·3위 이용주(우석건설) 〈타일〉 1위 이기영(성남건설기능학교)·2위 전유식, 조성철(세신이엔씨)·3위 박오금(동림에이스), 신재호(세신이엔씨), 양훈(풀하우스타일) 〈배관〉 1위 최철웅(세영이엔지)·2위 김현재(정우이엔지)·3위 박상선(TMC), 오홍주(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용일(대산이엔씨) 〈전기용접〉 1위 강병구(두산건설)·2위

전석중(제이에이치스틸), 조승익(혁성실업)·3위 소형욱(두산건설), 원동녕(한양이엔지), 황태익(성우설비) 〈도장〉 1위 박수진(건설기술교육원)·2위 박신영(건설기술교육원), 반기훈(삼양건설)·3위 권현숙(남도종합건설), 이상원(대평종합건설), 홍보라(건설기술교육원) 〈측량〉 1위 양재영·2위 김영(유엔시)·3위 방성훈(대한측량협회), 이일광(삼아합업) 〈조경〉 1위 정근정(산천랜드)·2위 김시연

(희당조경), 이주현(용덕건설)·3위 문말희(티지), 이기봉(희망조경), 이동규(태완개발) 〈전산응용토목제도〉 1위 최희영(미래기술단)·2위 이현주(유신)·3위 방미정(미래기술단), 김만기(경동종합건설), 한현이 〈실내건축〉 1위 박정미(건설기술교육원)·2위 전운순·3위 최홍규(전영타일) 〈방수〉 1위 이승진(예창건설)·2위 전상표·3위 석종성(형담종합건설), 유제성(거정건설)